

공유하고픈 정유년 광주문예회관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첫 공연은 3월 29일 열리는 '올라 비올라' 사운드의 '비바 비발디&비틀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비올라 앙상블'로 '올라'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다. '봄', '조화의 영감', '두대의 비올라 콘체르토', '오블라다 오블라다', '에스터데이', 바로크를 대표하는 비발디와 팝을 대표하는 비틀즈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홍지혜·김성은씨 등 13명의 비올리스트와 함께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어우러진다.

'동물원의 포크 & 락 콘서트'(4월 26일)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룹 '동물원'의 히트곡을 듣는 자리다. 원년 멤버인 유준열·박기영·배영길이 출연해 '널 사랑하겠어', '해와동', '거리에서', '시정 앞 지하실 역에서' 등을 들려준다.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6월24일)는 테너 박창일·고원석·김정범으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투루바'의 무대다. 가요 '미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 등장했던 드뷔시의 '달빛'. 지난해 11월 말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에서 만난 음악들이다. 일찌감치 표가 매진된 화제의 공연으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행복했다.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기획한 '아름다운 음악회'는 클래식, 재즈, 탱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큰 인기를 모았다.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진 청소년음악회 역시 마찬가지다. 회관측은 두 시리즈를 통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각 7개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회원권' 판매도 시작했다. 2명이 7개 공연을 10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은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공연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비바 비발디&비틀즈'·동물원·박주원 등 14개 공연 7개 공연 2인 관람권 10만원...연간 티켓 판매 시작

과 '무인도', '케사스, 케사스, 케사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인기 재즈 밴드 '프렐류드'의 색소폰리스트 리처드 로와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펼치는 '재즈 락서 콘서트'(6월 28일)도 눈길을 끈다. 재즈사의 명장면들을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과 희귀한 영상들로 보여주고 'Fly to the moon', 'Girl from ipanema', '밀양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 등이 들려주는 '말티 앙상블 무-시네마 파라다이스'(7월26일)는 영화 음악을 클래식 음악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시네마 콘서트로 '미션' 중 '가브리엘 오보에' 등을 만날 수 있다.

신들린 핑거링을 자랑하는 집시 기타의 마술사 '박주원의 기타 콘서트'(9월27일)도 눈길을 끄는 공연이며 '이승훈의 와인 에 빠진 클래식'(10월 25일)은 정상급 소믈리에 이승훈의 와인 강의와 에디트 피아프, 베르디의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타이틀은 청소년음악회지만 성인 관객이 들어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 공연된다. 전문가들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지는 기획이다.

첫 공연은 '아르츠 뉴욕 VS 런던'(3월 21일)이다.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번호 15', 뮤지컬 '라이언 킹', '캣츠', '시카고' 등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해설은 윤상인씨다.

'해피 버스데이 드뷔시'(4월 4일)는 '달빛', '첼로 소나타' 등을 팝피아니스트 윤한과 현악팀이 연주를 들려준다.

또 '리멤버 파타로티'(6월7일)는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서거 10년을 맞아 국내 테너 3인이 출연, '카루소', '오솔레 미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파바로티의 애창곡을 들려준다.

클래식 칼림리스트 김문경의 해설과 피



기타리스트 박주원

아니스트 박종해의 연주가 어우러진 '피아노의 신, 쇼팽'(7월25일)에서는 '녹턴', '마주르카' 등 그의 대표곡을 만나보는 시간이다.

'클래식 큐레이터'(9월5일)는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만난다.

그밖에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피아니스트 피터 클리모가 만난 '리스트 VS 파가니니'(10월24일)는 현란한 기교로 유명한 리스트와 파가니니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라 캄파넬라', '헝가리안 랩소디' 등이다.

마지막 무대는 '시네마 클래식'(11월21일)으로 '인디애나 존스', '슈퍼맨', '스타워즈' 등 엔리코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등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개별 공연 티켓 일반 2만원(회원 30% 할인), 청소년 무료.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상과 글밭에서 피워낸 문학의 향기

'광주수필'·'광주여류수필' 동인집 잇따라 발간

광주에서 활동 중인 수필문학 동인들이 최근 개성적인 수필 동인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광주수필문학회의 '광주수필' 제64호와 광주여류수필문학회의 '광주여류수필' 제25집이 바로 그것.

지난 1978년 결성된 광주수필문학회는 광주리는 지역을 토대로 문학의 향기가 좋아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꾸린 동인회다.

이번호 초대수필에는 고(故) 윤모춘 작가의 '오을실 주인'이 실렸다. 고인은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교사와 교육 관련 잡지에 근무했다. 수록 작품은 오동나무 잎에 지는 빗소리를 서정적인 언어로 그린 것으로, 윤 작가의 잔잔한 글쓰기 스타일이 녹아 있다.

시시수필에는 광주문학상과 소월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장정식 작가의 '신라문학상 수필을 읽고'와 '거듭나야 할 생존의식' 두 편이 실렸다.

신작수필에는 강원구·고희남·김덕일·김명국·김수림·김영관·김왕수·김용관·김용욱·김용하·김익환·김학근·김한호·김향덕·문수봉·문일선·박석지 작가 등의 글이 수록됐다.

한편 어느덧 스물다섯 건설한 '청년'으로 성장한 광주여류수필문학회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여성 수필가들이 수필을 매개로 활동하는 글밭동인이다.

이번 호 특집은 지난해 타계한 고



(故)김향자 수필가를 중심으로 다뤘다. 대한문학상과 광주문학상을 수상한 김 작가는 전라수필 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생전에 김 작가는 단아하면서도 정갈한 작품을 펴내 동인들과 문학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특집에는 고인이 남긴 '나도 시 지어 놓은 것이 있는 디', '개미 발을 밟았어요'와 남편 조인호의 '사모의 한', 후배 김수림의 '향자인니께', 동인후배 남은례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등이 수록됐다.

또 다른 특집 공동 화제는 '거짓말'로 김수림·김은순 작가가 각각 '하얀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을 상재했다. 거짓말을 개성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본 두 작가의 글은 읽는 맛을 더해준다.

신작수필에는 고병욱·김경순·김명희·김수림·김은순·김현임·남은례·문설희·신해자·안근영·이재월·이점숙·이정선·조성자·최경자 작가의 글이 실렸다. 또한 양림동을 둘러본 소감을 풀어낸 '회복된 에덴동산'과 고봉 기대승이 배향된 월봉서원을 다녀온 이정선 수필가의 '인문학기 그윽한 월봉서원'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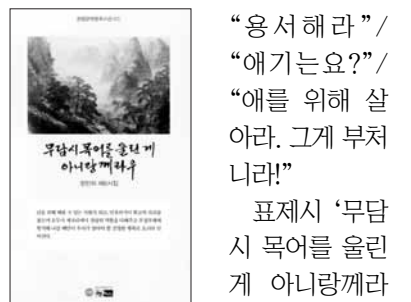
/박성천기자 skypark@

장민하 시집 '무담시 목어를 울린 게 아니랑께라우'

호남시조시인협회 장민하 사무국장 이 여섯 번째 시집 '무담시 목어를 울린 게 아니랑께라우'(한림)를 펴냈다.

다섯 번째 시집을 낸 이후 12년 만에 발간한 시집에는 자연과 일상, 고향과 통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7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이밖에 시집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과 양식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의지를 형상화한 시들도 다수 있다. 특히 지난 여름 뇌출혈로 쓰러져 한동안 의식 불명상태로 병원신세를 지어왔던 시인에게 이번 창작집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 젊은 비구니가 한밤에 목어를 치고 있어지라우/ 근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갔고/ 늙은 여승이 자다가 나와/ '왜 그러냐?'고 물었당께요"/ "저라고 맬끔시 목어를 울리고 잠겼어요?/ 그러자 늙은 여승이 도개 책망할 줄 알았는디/ 돌연 합장을 현시릉/



"용서 해라"/ "애기는요?"/ "애를 위해 살아라, 그게 부처니라!"

표제시 '무담시 목어를 울린 게 아니랑께라우'는 독특한 제 목만큼이나 작품이 주는 울림도 만만치 않다. 전편을 형상화하고 있는 전라도 사투리는 읽는 맛을 더해준다. 장 시인은 "성(聖)과 속(俗)의 어느 위치에서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 출신인 장 시인은 1994년 '오늘의 문학' 가을호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광주시인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프게 웃고 아프게 사랑하고'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운명을 넘어 역사가 된 시간...이원화 소설집 '꽃이 지는 시간'

광주일보문학상(2011년) 수상 작가인 이원화 씨가 세 번째 소설집 '꽃이 지는 시간'(문학동네)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삶의 결을 현미경처럼 드러내는 6편의 소설이 담겨 있다. 작품은 일찍이 부분 시간과 운명이 삶과 결부돼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고 전이되는지를 탐색한다. 각각의 소설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느낌이 감지되는 건 그 때문이다.

'감나무가 있는 집'은 시간을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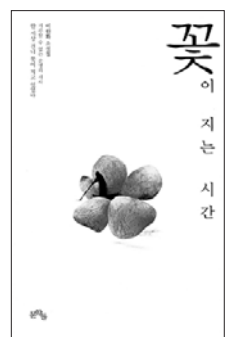
한 기억의 소환이자 기억의 제의로 읽히는 작품이다. 소설속 화자는 시어머니가 한평생 살았던 퇴락한 집으로 독자들과 안내한다. 그러나 정작 독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다.

"사람은 가고 나무만 저렇게 남았네. 감나무에 새순 돋았나 싶으면 금세 꽃피고 흥시 따고 함서 일년이 가지야. 언제 이렇게 살았나 싶으디 벌써 이 나이여."

표제작인 '꽃이 지는 시간'도 근현대사

를 겪으며 살아온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을 기록한 서사다. 각각의 인물들에게 시간은 운명을 넘어 역사로 환원되고 해석된다. 권덕하 시인은 이를 "상처와 아픔과 숨겨진 울분과 애절한 사랑이 얼룩진 소설"이라고 평한다.

이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소설 속 이야기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제 소설이 설 자리가 있을까 반문한다"며 "그럼에도 전업작가로 살기를



희망했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글을 썼고, 소설집을 묶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다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안도 출신으로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현재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길을 묻다', '키스가 있는 모텔' 등의 창작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린다!

아제 감성드와르

아빠本色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CHANNEL